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잡아 위기를 극복하자

큰 방죽의 뚝도 작은 모래 구멍을 방지하면 무너진다. 방죽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며 이를 미리 단속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새들은 짝짓기가 되면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산다. 가정은 인간이 모여 사는 생활의 근본이며 주택이란 주거 환경에서 부부가 혼인하여 짝을 지어 살면서 종족을 보존하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혼자 사는 주택은 가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아시아에

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소식이며, 그보다 가출 청소년 1위란 소식까지 더하여 지고 있다. 핵가족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인 주택과 미혼자의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쳐나갈 사명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주어져 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데 가족제도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효 교육이 줄어들었으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가정교육에 등한시 하고 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맨 처음의 공동체다. 가정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류 타락 이전에 시작되었고 타락 이후 벌을 받을 때

도 가정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국가와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이는 마치 몸의 기본 단위가 세포인 것과 같다. 국가와 교회는 가정이라는 세포들이 합하여져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국가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그리고 가정의 기본은 부부다. 몇 해 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정도를 진단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총체적 위기임을 전제로 하고 어느 분야가 가장 큰 위기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예상외의 결론이 나왔다.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다. 가정이 첫 번째로 손꼽히는 위기였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함에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랫구멍에 방죽이 무너지듯 나라도 망하고 인류도 멸망한다. 가정이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는 3가지 주범이 있다. 첫째는 대화의 부재다. 둘째는 성적인 문제다. 셋째는 협동 정신의 부족이다. 첫째 번의 대화의 부족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각 분야에서 상하 좌우간에 소통의 문제, 대화가 막혀 있기에 그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 성경에서는 서로 간의 교제를 Koinonia라 부른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서로 간에 나누는 교제가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며, 한국교회는 이 Koinonia의 부재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교회가 대령되도록 대화 곧 소통의 부재가 더욱 심각하여진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함에는 가족들 간의 대화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대화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번의 성적인 문제는 언젠가부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부부간에 성적 순결함과 청소년들의 성적 순결에의 마음가짐과 책임의식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순결 교육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구체적인

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적 순결이 사회 전체의 기본 윤리의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자식을 낳아 혼인 시켜 종족 보존인 가정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면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으며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번의 협동 정신의 부족을 극복하려면 가족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내 역시 남편의 어려움을 배려하여야 한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을 배려하고 부모는 아들, 딸의 고민을 배려하여 이끌어 주어야 한다. 흔들리는 가정을 회복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가정은 인류사회의 기본 단위가므로 가정이 건실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흔들림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탄사용 서민 불청객 가스중독 주의하자

연말을 맞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가 이어지는 훈훈한 소식 이 언론을 통해 들려온다. 아직은 코로나19 여파가 온정의 손길까지는 파장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 아침 저녁로 쌀쌀한 냉기가 온몸을 휘도는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겨울이 성큼 우리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추운 날씨가 돌아오자 요즘 난방 기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

운데 기름보일러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정과 달리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일부 세대도 주변에 종종 볼수 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을 사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예전 인기를 끌었던 서민용 난방수단인 연탄 수요가 꾸준하다고 한다. 일단 연료 값이 싸고 가격 대비 열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연탄을 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 등

사용에 있어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추운 겨울을 나아할 주민들 입장에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기름보일러 사용은 아무래도 꺼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연탄이 적은 비용으로 따뜻하게 날수 있는 수단인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자칫 방심할 경우 연탄가스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인명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연탄은 발생하는 가스를 흡입할 경우 신경 마비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대체 연료

수단이다. 매서운 겨울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가격이 저렴한 연탄을 사용하는 않는 득보다 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연탄 아궁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방틈이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가뜰이나 추운 날씨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수 있도록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안전에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때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